『대학과 선교』 제47집 | 일반논문: 73-104

대학의 이념과 진리와 자유 정신의 성서적 이해*

–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정(연세대학교, 부교수, 신약학)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와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고,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 정신(요한 8:31-32)을 대학 이념으로 제정한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몽주의적 진리 이해에 토대하고 있는 현대 대학의 진리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 드러난 진리의 인격성과 해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진리의 인격성은, 진리 탐구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대상적으로 탐구되는 '무엇'(whatness)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 연합은 상호 사랑을 통해서, 믿음(앎)을 통해서 전 존재 가운데 구현된다는 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지닌다. 진리의 해방성은 진리 탐구의 전제로서의 자유가 아닌, 진리 추구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가리킨다. 요한의 진리 추구는 세상의 거짓과 미움과 박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한 요한공동체의 신앙적 갈망은, 불안과 억압의 소산인 동시에 그러한 불안과 억압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리의 해방적 성격은 세상의 거짓과 억압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로마제국의 폭력과 유대교로부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터의 배제와 거부의 경험 속에서 진리와 자유라는 대안적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위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 정신이 내포한 진리의 인격성과 해방성은 기독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주제어: 기독교 정신, 진리, 자유, 성서, 요한복음, 연세대학교

I. 서 언

이 논문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와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고,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 정신(요한 8:31-32)을 대학 이념으로 적용해 온 사례를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진리와 자유는 대학의 역사에서 대학의 이념 또는 정신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진리 추구와 학문적 자유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1] 진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베리타스(veritas)를 거의 모든 유럽과 미국 대학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12세기부터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와 같은 유럽의 대학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요건들을 배경으로 형성되었고, 대학사(大學史)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대학 출현의 원인을 분석한다.[2]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각기 다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학 출현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며, 대학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적 탐구, 진리에 대한 추구이다. 대학을 뜻하는 universitas 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목적, 즉 진리 추구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조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 교수(또는 학생)의 길드로 출발한 대학은 각기 다른 분야를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적, 곧 진리를 향한 열망을 추구하였던 것이다.[4] 중세 이래 서구 대학의 모토였던 진리, veritas는 이성에 기반한 진리, 경험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아리스토텔레스적

1) "대학의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는 지적인 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벽이다. … 대학의 생명은 … 지적 탐구정신,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석우,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1998), 56-57.

2) 이석우, 『대학의 역사』, 35-57. 이광주, 『大學史: 이념 · 제도 · 구조』 (서울: 민음사, 1997), 51-62 참고.

3) 통합유럽연구회, 『유럽을 만든 대학들』 (서울: 책과 함께, 2015), 14.

4) 이석우, 『대학의 역사』, 50-51 참고.

진리를 의미한다.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진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인류의 지적 유산 전체를 총칭하는, 그래서 인류가 보존,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지식 체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식과 인격을 망라한 교양의 개념을 뜻하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 직업적 목적을 위한 실용적 지식, 등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었다. 따라서 진리 추구는 시대마다 강조점을 달리 하면서 그 의미가 분화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리 추구의 정신은 대학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대학이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대학에 부여하였는데, 바로 대학의 자율, 자주성, 자유의 문제였다. 대학의 출현 시기인 중세에는 교권, 왕권과의 관계에서, 근·현대에서는 국가, 자본, 외부 기관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 영향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5] 그 이유는 진리 탐구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란 "연구하는 자의 양심과 책임에 의해서만 제한받으며 그 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6]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한다. 대학이 누렸던 자유 안에서 대학 자체가 기득권화되어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거슬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진리 탐구가 기존의 세계를 넘어서거나 파괴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인 한, 진리 추구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인 동시에 기독교 대학으로서 연세대학교는 대학의 이념을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7] 연세대학교는 특별히

---

5) 대학의 역사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각주2)에 제시한 책들을 참고하라.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이센의 재생을 위한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기획으로 추진되었던 베를린 대학교의 창건자들이 학문의 자유를 강조했던 데에도 잘 드러난다.

6) H. P. Bleuel, Deutschlands Bekenner-Professoren zwischen Kaiserreich und Diktatur, 이광주 역, 『지성의 몰락』 (서울: 한길사, 1980), 10.

7) 민경배, "연세 창립과 기독교 정신,"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

요한복음[8] 8장 31-32절에 근거하여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대학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 대학이 추구해 온 이성 중심의 진리(veritas)와 달리 신앙에 기반한 진리(ἀλήθεια)를 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대학의 이념으로서의 '진리'와 '자유' 정신의 성서적 토대(이 경우는 요한복음)를 살펴보고, 그 정신의 적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요한복음에서 진리(ἀλήθεια)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어우러져서 요한의 사상을 변주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와 자유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개괄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은혜와 진리, 진리와 빛, 영과 진리, 진리와 자유, 죄-진리-믿음, 길-진리-생명, 진리의 영,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진리를 증언함, 진리가 무엇이냐, 등 매우 다양한 주제들과 연결되어 등장한다. 이러한 양상들이 만들어내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진리 이해의 특징을 포착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요한 8장 31-32절의 진리와 자유 담론의 논쟁적 상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진리와 자유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성서적 토대에서 연구된 진리와 자유 사상이 대학의 이념으로서의 진리와 자유 정신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7-29 참조;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 연세통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3-63 참조.

8) 이후 장절 표시와 함께 언급할 경우 '요한'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예: 요한 8장 31-32절)

II.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와 요한의 예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진리'(ἀλήθεια) 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9]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ἀλήθεια라는 단어의 어원은 '숨김이 없음'[10] 즉 어떤 것의 온전하거나 실재적인 상태라는 의미를 뿌리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는 사실(fact)에 준하는, 실재적인(real)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불트만(R. Bultmann)은 요한의 진리를 헬라적 개념에 토대하여 인간의 실재와 구분되고 그 자체로 계시되는 신적 실재(divine reality)로 규정하였고,[11] 다드(C. H. Dodd)도 불트만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궁극적 실재(reality)로, 인간에게 드러난 영원한 실재, 즉 실재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계시이기도 한 실재라고 정의하였다.[12]

이와 다른 관점에서 드 라 포테리(De la Potterie)는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의 배경에서 진리 개념을 신실성, 올바름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요한에서 진리를 행한다(요한3:21), 진리로 거룩해진다(요한17:17, 19)와 같은 표현들이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13]

---

9) 공관복음서 모두 합해서 7회 등장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25회 등장하고 있다.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Company, 1966), 499-501.

10) ἀ-λήθος의 의미로 숨겨져 있지 않음(un-hidden), 또는 폐쇄되지 않음, 드러나 있음(dis-closed)을 뜻한다.

11) R. Bultmann, "ἀλήθεια,"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1, ed. by G. Kittel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245.

12)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 U. P., 1963), 170-178.

13) David J. Hawkin, "The Johhanine Concept of Truth and Its Implications for a Technological Society,"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LIX, no.1.(1987), 3-13, 특히 7-8 재인용.

호킨(D. J. Hawkin)은 요한의 진리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한 후 결국 요한의 진리는 신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the revelation of divine nature)과 연관되기 보다는 신적 인물들에 대한 신학(a theology of divine persons)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한 계시자,' '계시된 진리의 충만'으로서의 ἀλήθεια이다. 예수는 단순히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계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영헌은 요한복음의 진리 개념을 분석하면서, "요한복음서의 진리는 한마디로 복음사가가 자신의 주요한 구원계시 신학사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 해명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14]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요한의 예수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개념들, 즉 로고스(말씀), 생명, 빛, 영과 같은 개념들과 연결되어 예수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요한의 모든 신적 타이틀이 '진리'라는 단어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의 진리 개념은 그리스의 주지주의적 개념이나 신비주의의 우주적 이원론과 구분된다. 그것은 인간에게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 성육되었고, 영의 활동을 통해서 조명된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진리는 작용적-실천적(operative-practical)이다.[15] 호킨의 주장은 요한의 진리 개념이 인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지적해 주었다. 린드세이(D. R. Lindsay)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주요 구절들을 구약성서와 쿰란 문헌들과 비교하여 요한의 진리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은혜와 진리'(요한 1:14, 17), '진리를 행하다'(요한 3:21),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요한 4:23, 24), '진리를

14) 이영헌은 요한복음의 진리 개념에 대해서 문장 구조 분석, 문맥에 따른 신학 사상, 종교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영헌, "요한복음서의 진리 개념에 대한 성서적 고찰," 「신학전망」146 (2004, 9), 2-21, 인용은 21.

15) David J. Hawkin, "The Johhanine Concept of Truth and Its Implications for a Technological Society," 9-11, 13.

말하다'(요한 8:30-47), '나는 진리이다'(요한 14:6), '진리의 영'(요한 14:17, 15:26, 16:33),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요한 17:17, 19)라는 구절들에 주목하였고, 이 구절들에서 진리는 구약성서와 쿰란 문헌에 언급된 하나님의 תֶּמֶד(emeth, faithfulness),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이해된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예수의 실존을 통해서, 실행적이고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드러난다.[16]

그란시(Jennifer A. Glancy)는 "제4복음서에서 예수의 육체가 바로 진리의 재료(the stuff of truth)이다"[17] 라고 표현하면서 요한의 진리를 육체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고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고문(사법적 절차)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몸에서 진리를 끌어내려고 했던 관행에 주목하여 요한복음의 빌라도 심문(고문)을 중심으로 요한의 진리 개념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그의 접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와서 진리를 증언한다는 요한의 사상이나 요한의 예수가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진리에 대한 심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여 몸의 고문을 받는다는 요한복음의 증언(18: 37-19:1)을 잘 반영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피투성이 된 몸, 고문당한 육체는 예수의 진리를 말한다. 화육하신 예수의 몸은 진리의 장소가 되는 몸(육체)이다.[18] 예수의 몸은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폭력으로 상처 입은 영광된 몸의 진리를 증언한다.[19] 빌라도는 거대한 제국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진리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20] 로마 권력

16) 자세한 논의는 Dennis R. Lindsay, "What is Truth? ἀλήθεια in the Gospel of John," *Restoration Quarterly*, 35 no 3 (1993), 129-145를 참고하라.

17) Jennkfer A. Glancy, "Torture: Flesh, Truth, and the Fourth Gospel," *Interpretation* 13, 2 (2005), 107-136, 인용은 107.

18) *Ibid.*, 136.

19) *Ibid.*, 135.

은 예수의 몸을 고문함으로써 진리(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고문 희생자에 불과하다)에 도달하려고 했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고문당한 예수의 몸은 스스로 그에게 가해진 폭력을 고발하고, 고난받기를 택한 예수의 주체성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드러낸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리에 관한 수많은 진술들을 예수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공관복음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물이라면, 요한복음의 예수는 진리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예수 자신이 진리이며, 동시에 진리를 드러내는 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인 예수와 일치(연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아버지(하나님)와 하나가 되는데, 신자는 이 연합에 참여하여 진리에 속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 연합은 서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신자들 간의 연합으로 확대된다.

요한의 예수로 표상되는 요한복음의 진리는 대상적으로 탐구되는 '무엇'(whatness)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고, 앎, 지식, 깨달음, 믿음을 통해서 삶과 인격과 생명, 전 존재 가운데 구현된다는 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지닌다. 이 인격성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실행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실천적이다. 또한 이 인격성은 예수와 하나님과 영(보혜사)의 하나됨(요한 14:16-17, 20), 예수(하나님, 영)와 신자들의 하나됨(17:21), 신자들 간의 하나됨(17:22)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진리의 상호성을 보여준다. 진리와의 합일은 진리이신 예수와의 상호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요한 15장 12절에서 예수는

---

20) *Ibid.*, 125.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진리의 인식능력으로서 사랑을 강조한다. 헤셀(A. J. Heschel)은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21] 이처럼 요한의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상호적이며, 인격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의 진리관은 진리의 인격성, 상호성,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진리 개념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변주되는 것에 반해서 ‘자유’ 또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요한 8장 32, 33, 36절에만 등장하고 있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8장 32절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8:33),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8:36) 따라서 8장 32절에 언급된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8장 32절 이하의 논쟁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자유 개념이 다른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단락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3장에서 ‘진리’의 영에 대한 언급과 함께 등장하는 16장의 관련 구절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III. 요한복음 8장의 진리와 자유 담론

연세대학교의 교훈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요한 8장 31-32절에 등장한다.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요한

21) Abraham Joshua Heschel, *A Passion for Truth*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45.

8장 31절의 하반부부터 32절을 연결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읽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놓여 있는 문맥은 31절과 32절을 연결해서 읽는 것에 의문점을 남긴다. 31절 상반부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언급되어 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여 하반부,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전한다. 이것을 32절까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 32절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서 '너희를(ὑμᾶς)'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뜻한다. 즉 31-32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인 것이다. 31-32절만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3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 의문이 생긴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문장에서 '그들'은[22] 32절의 '너희'와 연결된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31절까지 연결하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로 규명된다. 33절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청중의 정체는 31절 '유대인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예수와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이 청중의 정체는 매우 당혹스럽게 변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39, 40절), 결국에는 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의 자손이고(44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46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47절)이다. 또한 이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였다.(59절) 32절 이하에서 진행되는 예수와 유대인들 간의 대화는 31절의 청중인 '예수를 믿

22) Ἀπεκρίθησαν (they answered) 그리스어 3인칭 복수 동사의 사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거나,[23] 또는 31절과 32절(33절)의 청중이 동일한 청중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30절에 주의를 기울이면, 31절이 8장 12절에서 시작되는 담화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장 30절과 31절을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31절)" 그리고 32절부터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새로운 담화가 시작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32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33절)"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예수의 주장을 반박한다. 종과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유를 '죄'와 연관시킨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장하여, 유대인들이 제시한 '종' 논리를 유지하면서,[24] 그것을 죄에 대한 논의로 바꾼다. 여기에서 자유는 죄의 종이 되는 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진리와 자유는 '죄' 개념을 매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장 32절 이하의 진리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논쟁(요한복음의 죄 이해를 포함하여)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25]

---

23) Paul M. Hoskins, "Freedom from slavery to sin and the devil: John 8:31-47 and the passover theme of the Gospel of John," *Trinity Journal* 31 no.1(2010), 47-63, 특히 54-55는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다.

24) 35절은 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종과 아들의 차이를 집에 영원히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한다 '~에 거주하다'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중 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수에 의해서 반박된다. 예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37절),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으며(39절, 40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로 밝혀진다고 주장한다.(44절) 그들의 아비인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44절), 그들은 그 아비처럼 결국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며(45절, 46절), 예수를 죄 있다고 하고(46절),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37절, 40절, 59절)[26]

따라서 진리가 해방시켜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진리는, 예수를 죄 있다고 주장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거짓 증언)과 살인(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진리가 죄(거짓말, 살인) 자체를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방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리는 죄(거짓말, 살인)로 인해서 생긴 결과, 즉 거짓 증언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예수의 현실을 잘못된 것으로 폭로함으로써 그 부당한 현실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죄가 있다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부당한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 요한공동체에게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27]

---

25) 죄에 대한 논의는 9장에도 계속 이어진다.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논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를 안식일에 치유한 예수가 죄인이 아니냐는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26) Jan G. van der Watt, *Family of the King: Dynamics of Metaphor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den · Boston · Köln: Brill, 2000), 188-191, 357-358 참고.

27) 8장의 구조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Cho Jaecheon "A Rhetorical Analysis of John 8:12-59," 「신약논단」 22/1(2015), 57-90 참고.

요한 8장 24절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죄로 규정하는지 드러내준다. "내가 그(그리스도를 뜻함)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논쟁이 예수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장 2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한 질문, "네가 누구냐?"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이 죄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수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로 치닫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그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이다.(8:44) 예수의 정체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초반부터 언급되고 있다.[28]

이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로까지 확대된다. 요한 12장 11절에 따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를 거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예수를 넘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15:18),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15:20) 요한 15장 21절은 제자들이

28)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5:18)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7:1)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7:19)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7:25)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8:37)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8:40)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8:59) "그들이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11:53)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19:7)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다. (19:16, 18)

받는 미움과 박해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따라서 이 미움과 박해 또한 죄로 간주된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또한 죄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15:22)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16:2)[29]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진리와 대치된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가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진리와 대립되는 거짓, 거짓말로 규정된다.(8:44, 45, 46) 진리는 예수 안에 충만하며(1:14),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고(1:17), 예수 자신이다.(14:7) 예수는 자신이 떠난 후 진리의 영인 파라클레토스(보혜사)를[30] 보낼 것이라고 약속한다.(14:16; 15:7) 그리고 제자들은 진리의 영으로 오는 파라클레토스를 알고 그와 함께 거함으로써(14:17) 진리에 속한다. 예수와 파라클레토스와 제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로서 죄와 대립한다. 진리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대립은 빌라도 심문 장면에도 등장한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빌라도는 진리인 예수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18:37-38) 빌라도는 진리를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무엇(whatness)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의 예수는 빌라도의 범주를 거부한다. 예수의 신적인 정체성은 로마제국의 그 어떤 정치적 술어로도

29) 김선정, "요한공동체의 재판," 「신학사상」 115(2001, 겨울), 193-210. 특히 201-202 참조.

30)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변호인을 뜻하는데, 우리말 개역성서에서는 보혜사로 번역하였다.

파악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 장면에서 진리이신 예수와 그 예수(진리)를 알지 못하는 빌라도가 대조되고 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진리에 관한 언술들은 인격적이며 상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요한 1장은 예수를 로고스가 육화된 인물로 묘사한다. 즉 예수는 진리의 화신인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 사건 자체인 예수와의 일치가 중요하다. 요한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대상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신조나 교리, 혹은 신학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32절에 사용된 그리스어 **γινώσκω** (알다)는 인지적인 앎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자 하는 대상과의 인격적 일치를 뜻한다. 따라서 요한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진리와 합일, 즉 진리이신 예수와의 인격적 합일을 의미한다.

한편,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죄와 거짓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7:24) 법정 상황을 연상시킨다. 특히 요한 16장은[31] 진리, 죄, 자유의 연관 관계를 법정의 맥락에서 전개한다. 진리의 영은 파라클레토스(변호인)로서 예수를 증언하는데(요한 15:26),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죄가 있다고 책망한다.(요한 16:8) 우리말 성서에서 '책망하다'(개역개정), '꾸짖어 바로잡다'(표준새번역)로 번역한 그리스어 **ἐλέγχω** 는 '판단하다', '유죄 판결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부각시켜서 풀이해 보면, "그(파라클레토스, 변호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시리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한 16장 9절에 따르면, 죄는 8장 24절에서와

31) Fernando F. Segovia, *The Farewell of the Word*(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28-245 참조.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한 16:9)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16:2) 하나님과 대립하는 악마의 일이다.(8:43)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를 고소한 자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만, 그 유죄 판결은 역으로 다시 예수를 고소한 자들에게로 되돌아간다.[32] 예수는 고소를 당하는 동시에 고소한다. 그는 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입장에 놓이는 동시에 판단을 내리는 입장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은 이중 법정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받는 자가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33]

요한공동체[34]는 예수처럼 그들을 거부한 자들로부터 심판받지만, 또 예수처럼 그들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파라클레토스로부터 심판받았던 것처럼, 요한공동체를 거부한 자들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요한공동체는 자신들이 확립한 죄 개념에 토대하여 자신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한다.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심판했지만, 예수께서 결국 그들을 이겼던 것처럼(16:33), 요한공동체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요한 20장 22-23절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한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공동체는 이제 예수와 자신들을 거부한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심판할 전권을 위임받는다. 요한공동체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32) Jerome H. Neyrey, "Jesus the Judge: Forensic Process in John 8,21-59," *Biblica* 68(1987), 509-542.

33) 김선정, "요한공동체의 재판," 209 참조.

34) 요한복음 배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요한복음의 예수 이야기는 이 배후의 공동체에서 해석되고, 형성되고, 공유 및 전파된 것으로 이해한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한공동체가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운명, 곧 영원한 생명의 소유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했던 사회적 세계를 반영한다.[35] 그들에게 자유는 거짓을 드러내고 반박하며, 그 거짓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현실(박해, 죽음 등)을 폭로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는 진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36] 불의와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 요한복음에서 자유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위협했던 부당한 현실로부터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IV. 연세대학교의 '진리와 자유' 정신의 역사와 의의

연세대학교는 1946년 요한 8장 31-32절에 토대를 둔 '진리와 자유' 정신을 학교의 교훈으로 확립한다.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을 거쳐 연희전문학교로부터 내려온 기독교 정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진리와 자유에 정초하여 건학 이념을 재정립한 것이다.[37] 이 교훈은 연세대학교 역사에서 해방 후 연희전문

35) 김선정, "요한공동체의 재판," 209-210 참조.

36)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세상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37) 김동환은 백낙준을 통해서 드러나는 연세대학교의 학풍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풍으로 진리와 자유의 학풍을 주목하였다. "연세대학교의 전반적인 학문적 풍토를 논함에 있어서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적 가치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 가치가 본 대학의 창학 정신으로 정해졌기에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이

학교에서 연희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총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훈을 제정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전해진다.

>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남의 지배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외적 자유이지요. 각자는 또 양심을 가졌고 도의를 알고 이상을 바라며 살지요. 이 양심과 도의와 이상을 해치려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내적 자유입니다. 내적 자유 없이는 외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학문적 양성을 통한 지식의 발전으로 진리를 깨치는 일이 곧 내적 자유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이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38]

백낙준은 진리와 자유의 상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진리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전제로 진리 탐구를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백낙준은 요한복음의 진리 이해에 부합하는 생각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자유는 진리 추구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다. 서구의 대학들이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요청되는 선제적 요건이 학문의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39] 요한복음에서 자유는 진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즉 진리 체득의 결과로서 자유가

아니라, 이처럼 연세의 출발점에서부터 연세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 근저에 깊이 드리워진 '학풍의 닻'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동환, "백낙준을 통해 발굴되는 대학의 학풍," 「신학논단」 79(2015), 161-194. 특히 178, 188. 190-191.

38) 백관인 편, 『백낙준 박사 대담 모음: 내일을 위하여』 (서울: 정음문화사, 1989), 295.

39) 근대 대학의 이념과 기독교 대학의 이념 간의 갈등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김동환,"옥스퍼드 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비교를 통해 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학원 선교적 사명에 대한 소고," 「대학과 선교」 29(2015), 7-42, 특히 31. 이요섭 "기독교 대학의 이념에 대한 고찰," 「대학과 선교」 13(2007), 121-134. 특히 128-131.

얻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백낙준이 자유를 죄의 문제와 결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낙준의 자유와 진리에 관한 이해는 중세 대학 이래로 서구 대학들이 표방하였던 학문적 자유와 객관적 진리 탐구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는 학문적 진리와 내적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를 연관시킨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학문 연구가 내적 자유를 얻는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학문을 통한 내적인 자기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몽주의 이후 데카르트적 진리관으로 무장한 대학은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거리'를 설정하여 진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진리와의 거리두기는 필연적이다. 진리에 대한 주관적 사랑이나 인격적 이해는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객관주의적인 진리 추구의 방식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동시에 실재하는 진리에 의해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다시 말해 연구 대상을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와 연합을 통해 진리의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팔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와 분리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식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개방적이고 신실하고 모험적인 상호 침투(interpenetration)를 의미하기 때문이다.[40]

과학사의 사례들은 종종 팔머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리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탐구의 대상과 일치되면서 자신의 존재가 탐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령, 옥수수 유전자 연구로 198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바라 맥클린톡(Barbara McClintock)

40) 파커 팔머/ 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6), 122.

은 자신의 탐구 대상이었던 옥수수와의 일치 경험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41] 그의 경험은 연구 대상과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온전한 합일을 통해 진정한 진리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진정한 앎은 자기 해체를 통해서 대상과 인격적 일치를 이룸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맥클린톡의 사례가 입증해 준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예수)와의 일치와 연합을, 맥클린톡은 과학의 영역에서 경험한 것이다. 팔머는 "진정한 앎은 육체 없는(disembodied) 지성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일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42]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영혼 없는 객관적 탐구만을 올바른 학문적 자세로 간주하는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우리 대학들이 여전히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빌라도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날에도 던지고 있지 않은가 성찰해 볼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진리의 체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학의 연구 풍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백낙준은 여타의 대학들이 지향하는 학문적 베리타스를 넘어 요한복음의 진리관(알레세이아, 자유와 구원으로서의 진리)을 연세대학의 교육이념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통합으로 새로 출발하게 된 연세대학교에서 초대 총장으로 백낙준 박사가 취임하는데, 그는 취임사에서 연세대학교의 실시하려는 "主義"와 "精神"으로 "眞理", "自由", "基督敎 敎義", "大韓民國 敎育法令"를 언급하면서, 진리와 자유의 정신

41) 이블린 폭스 켈러/ 김재희 역, 『생명의 느낌, 바바라 맥클린톡의 전기』 (서울: 양문출판사, 2002). "정말로 거기에 몰두했을 때, 나는 염색체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움직였지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게 다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염색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대상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와서 스스로 얘기하도록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느낌을 개발하는 일이며,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생명의 각 부분을 빠짐없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42) 파커 팔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48.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43]

> "대학이 존재하는 目的은 眞理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 대학은 眞理를 探究하는 機關으로 모든 事物에 대한 考察을 철저히 하며 알려지지 않은 秘密을 알아내며 모든 事物의 성질과 조직을 발견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44]

여기에서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성질과 조직에 대한 신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물의 신비를 고찰하는 것이 대학의 존재 목적인 진리 탐구 작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自由라는 것은 無知無識에서 또한 迷惑과 疑懼에서 얻는 자유와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抑壓에서 얻는 自由와 모든 偏見 私感과 不安과 威嚇에서 얻는 자유를 말함이외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無識과 偏見과 不安 속에서 自由를 얻게 하자고 힘쓰는 그 목적은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形像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人格의 所有者입니다. 그 尊嚴性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自由를 얻어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45]

백낙준은 다양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자유의 근본 정신이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기독교 정신에 토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

43) 백낙준, "延世大學校 初代總長 就任辭," 『백낙준 전집 3: 연세교육의 이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28
44) 앞의 책, 29.
45) 앞의 책.

정신 아래서 진리와 자유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설명한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본능의 해방이 아니라 진리의 제재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중략) 人間本能의 解放이 자유가 아니요, 도리어 어떠한 本能의 衝擊은 制裁하는 데에서 自由를 얻게 됩니다. ....(중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自由는 진리의 制裁下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외다." "우리가 구하는 眞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啓示된 하나님의 眞理요, 우리가 爭取하는 自由는 人間生活上의 자유인 동시에 罪와 不義에서 벗어나는 心靈의 자유입니다."[46]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자유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백낙준은 우리가 구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가 쟁취하는 자유는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는 심령의 자유"라고 밝힘으로써,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진리와 자유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토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 8장 31-32절에 대한 언급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 것이요 眞理가 너희를 自由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47]

백낙준의 설명은 연세대학교의 진리와 자유 정신이 기독교적 토대(요한복음) 하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요한복음에서 진리와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

이 논문의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진리는

46) 앞의 책, 30.
47) 앞의 책.

예수와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리를 대상화하여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진리의 인격성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의 몸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승화시키고, 역사적이고 실천적으로 완성된다. 진리이신 예수와의 일치와 합일은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죄악 즉 진리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고발하고, 미움과 박해를 넘어서서 초극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

> 그러므로 우리 학교가 새로 출발함에 있어서 모든 人的 資源과 모든 物的 施設을 기울여 이 眞理와 自由의 精神的 價値를 얻기 위하여 道義의 터전 위에서 이 學校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가 眞理를 위하여 싸우는 것과 自由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이 학교의 使命이요 또한 이 대학가의 歷史에서 볼 수 있는 事實입니다."[48]

조선기독교대학에서 출발하여 연희전문학교, 연희대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진리와 자유의 정신적 가치를 얻기 위하여" 학교를 운영해 가겠다는 다짐과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학교의 사명이라고 한 취임사의 선언은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통하여 실현되어 왔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진리와 자유 정신 위에서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49]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

48) 앞의 책, 31.
49)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연세의 이념. https://www.yonsei.ac.kr/sc/intro/ideology.jsp

V. 결 어

진리와 자유는 중세 대학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진리 탐구와 학문적 자유라는 의미에서 대학의 이념과 정신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 역시 진리와 자유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내세우고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와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대학의 역사에서 진리와 자유 정신은 이성과 경험에 토대한 진리 탐구와 학문적 자유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진리와 자유 정신을 보다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건학 이념의 근거를 기독교 경전인 요한 8장 31-32절에 두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요한 8장 31-32절을 토대로 진리와 자유 정신을 교훈으로 제정한 백낙준은 대학의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 온 진리와 자유 정신과 더불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자유 정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시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이념이 기독교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쟁취하는 자유는 인간생활상의 자유인 동시에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는 심령의 자유입니다."라는 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자유 정신의 성서적 의미,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 8장 31-32절에서의 진리와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18세기 성서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확립된 이후, 성서 해석은 성서 그 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역사비평적 연구와[50] 해석자(또는 독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해석학적 연구[51]가 적용되어 성서의 의미를

50) 성서의 역사적 배경, 문헌학적 특성, 문학적 특성 분석, 사회과학적 모델 적용 등 성서 해석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51) 해석자의 이데올로기, 텍스트와 해석자 간의 소통, 등이 해석의 중요한 틀이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성서해석학적 전망에서[52], 1세기 말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공유했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요한공동체로 칭함)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사회적 세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요한 8장 31-32절에 언급된 진리와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대상적으로 탐구되는 무엇(whatness)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예수 자신이 진리이며, 동시에 진리를 드러내는 분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정체는 로고스(말씀)로서 아버지(하나님)와 하나이며, 진리의 영으로서 다시 오시는 분이다. 진리이신 예수는 아버지와 영과 일치하고, 예수를 따르는 신자 또한 이 연합에 참여하여 진리에 속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인 예수와 일치(연합)하는 것이다. 이 연합은 예수의 사랑에 토대하고 있고, 서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신자들 간의 연합으로 확대된다. 요한의 진리는 앎, 지식, 깨달음, 믿음, 상호 사랑을 통해서, 삶과 인격과 생명, 전 존재 가운데 구현된다는 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지닌다. 이 인격성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실행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실천적이다. 요한의 진리 이해는 대학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진리를 대상화하여 탐구하는 데서 나아가 진리와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도록 요청한다. 진리와의 상호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격적 연합과 일치는, 진리 탐구가 대상에 대한 정보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리와의 인격적 만남은 진리 탐구가 우리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자기실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요한의 진리는 이러한 진리와의

52) Bruce J. Malina and Richard L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159-167 참고.

연합과 일치가 자유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요한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 학문적 자유와는 달리 진리 체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이다.

요한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와 자유의 관계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논쟁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은 진리와 거짓의 대립, 죄있음(유죄)과 죄없음(무죄)의 대립, 논쟁, 변호, 판결과 심판 등으로 전개되어 마치 법정에서 유무죄를 논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 대립과 판단은 참(진리)과 거짓의 대결이며, 그 판단의 결과, 즉 유죄 판결의 결과는 심판 곧 죽음이다. 마치 예수가 심문당하고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처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의 정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두고 그의 정체[53]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 현실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공동체(믿는 자들)를 박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공동체는 요한복음의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고,[54]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미움과 박해에 맞서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판단과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그 적대자들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한다. 따라서 요한 8장 32절의 진리와 자유는 신앙과 삶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내놓은 결연한 신앙고백인 것이다.

요한복음의 사상에 토대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은 연세대학교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의 고백과 유사하게, 진리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만들어

53)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로고스(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으로 고백된다.

54)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영광, 신성의 회복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과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고, 예수의 삶을 이어나갔다. 그들의 헌신과 자기희생은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 진리와 일치하는 삶이 왜 이처럼 치열하고 첨예한 것일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 준다.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 드러난 진리의 인격성과 해방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대학의 역사 속에서 추구되어 왔던 진리 탐구와 학문적 자유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대상적으로 탐구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믿음(앎)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구현된다는 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 진리는 거짓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를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과의 일치는 거짓말과 살인과 미움과 박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은, 그들이 느꼈던 불안과 억압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불안과 억압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리의 해방적 성격은 억압과 폭력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한복음의 진리와 자유 정신이 내포한 진리의 인격성과 해방성은 기독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김동환. "백낙준을 통해 발굴되는 대학의 학풍."「신학논단」79(2015), 161-194.

_____. "옥스퍼드 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비교를 통해 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학원 선교적 사명에 대한 소고."「대학과 선교」29(2015), 7-42.

김선정. "요한공동체의 재판."「신학사상」115(2001, 겨울), 193-210.

민경배. "연세 창립과 기독교 정신."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백관인 편.『백낙준 박사 대담 모음: 내일을 위하여』. 서울: 정음문화사, 1989.

백낙준. "延世大學校 初代總長 就任辭."『백낙준 전집 3: 연세교육의 이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브위엘, H. P./이광주 역.『지성의 몰락』. 서울: 한길사, 1980.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편.『연세대학교 백년사1. 연세통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이광주.『大學史: 이념 · 제도 · 구조』. 서울: 민음사, 1997.

이석우.『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1998.

이영헌. "요한복음서의 진리 개념에 대한 성서적 고찰."「신학전망」146 (2004, 9), 2-21.

이요섭. "기독교 대학의 이념에 대한 고찰."「대학과 선교」13(2007), 121-134.

팔머, P. J./ 이종태 옮김.『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6.

통합유럽연구회 편.『유럽을 만든 대학들』. 서울: 책과 함께, 2015.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Company, 1966.

Bultmann, R. "ἀλήθεια."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1. Ed. by G. Kittel.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Der Watt, Jan G. van. *Family of the King: Dynamics of Metaphor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iden · Boston · Köln: Brill, 2000.

Dodd,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 U. P., 1963.

Glancy, Jennkfer A. "Torture: Flesh, Truth, and the Fourth Gospel." *Interpretation* 13, 2 (2005), 107-136.

Heschel, Abraham Joshua. *A Passion for Truth.*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Hawkin, David J. "The Johhanine Concept of Truth and Its Implications for a Technological Society."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LIX, No.1.(1987), 3-13.

Hoskins, Paul M. "Freedom from slavery to sin and the devil: John 8:31-47 and the pass-over theme of the Gospel of John." *Trinity Journal* 31 no.1(2010), 47-63.

Jaecheon, Cho. "*A Rhetorical Analysis of John 8:12-59.*" 「신약논단」 22/1(2015), 57-90.

Lindsay, Dennis R. "What is Truth? ἀλήθεια in the Gospel of John." *Restoration Quarterly* 35 no 3 (1993), 129-145.

Malina, Bruce J. and Rohrbaugh, Richard L.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Neyrey, Jerome H. "Jesus the Judge: Forensic Process in John 8,21-59." *Biblica* 68(1987), 509-542.

Segovia, Fernando F. *The Farewell of the Wor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ABSTRACT 】

Truth and Freedom in John 8:31-32: A Study of Yonsei Christian Spirit

Seon Jeong KIM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ruth and freedom in the Gospel of John, and to consider the case of Yonsei University that established the truth and freedom of John as a university ideology. The truth and freedom of the Gospel of John are characterized by the character and liberation of truth revealed in the unity with Jesus Christ. The truth of John's Gospel is not something to be searched as an object, but it means unity with Jesus Christ and through it with God. It h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in that it is embodied in life, personality through knowledge, enlightenment, and faith. Also, this truth frees us from the suffering of lies, murder, hatred, and persecution. The desperate longing for freedom through the unity of Jesus Christ and God paradoxically shows the degree of anxiety and oppression, and it also implies resistance and rejection to such anxiety and oppression. Therefore, the emancipatory nature of truth is also an expression of oppression and rejection of violence. In the era of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fundamental reflection on humans and the world is urgently required, the truth of John's Gospel and the character and liberation of the truth implied by the spirit of freedom suggest the direction for which Christian universities should go.

Key Words: Christian spirit, Truth, Freedom, The Bible, The Fourth Gospel, Yonsei University

doi: 10.22737/U&M.2021.47.073

논문접수일: 2021. 01. 04.	논문심사일: 2021. 01. 07.	게재확정일: 2021. 01. 15.